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7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9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 배포로 디지털 환적 관리 강화
- 울산항, 울산 앞바다 자율운항선박 성능 실증 해역 지정
- 평택·당진항,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평택항 물류 접근성 개선 기대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하이난 전역 특별 통관 운영 개시
- 싱가포르항, 메탄올 연료 공급사 3곳 선정 및 친환경 벙커링 허브 전환 추진
- 벨기에 총파업으로 유럽 항만 네트워크 전반에 혼잡 우려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컨테이너, '26년에도 시장 불황 지속될 예정
- '25년 11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3대 유종 모두 하락
- '25년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 660.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사상 최고치 달성 전망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건설현장에 AI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 체계 도입¹⁾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신항 북 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함

- 해당 현장은 고지대 산악지형으로 대형 덤프트럭 토석 이동이 잦아 상·하행 차량 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임
- AI 카메라가 곡선부 진입 차량을 자동 감지해 반대편 차량에 전광판으로 위험 경고를 실시간 제공함
- 사전 학습된 화물차량을 인식해 차량 움직임에 따라 신호를 자동 제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돌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한편, BPA는 향후 건설현장 전반에 AI 기술 도입을 확대해 장비 운행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항만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AI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 체계 개념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529>(2025.12.2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2.08.),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529>(2025.12.22. 검색)

2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 배포로 디지털 환적 관리 강화²⁾

-  BPA는 '25년 12월 16일부터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선사와 터미널운영사를 대상으로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을 배포한다고 밝힘
 - Port-i는 환적화물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지도 기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제공, 선박·화물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선석 스케줄 확인 기능을 제공함
 - 특히 AI 기반으로 작업 지연 위험과 환적 연결 위험을 예측·탐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환적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시스템은 전 운영사와 선사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되며, 이후 현장 활용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  또한 '26년에는 Port-i를 글로벌 물류 환경과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해외 항만과 글로벌 AIS 데이터 적용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2.1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567>(2025.12.22.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준설공사 준공으로 통항 안전성 강화³⁾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대비해 항로 연장 및 증심준설공사를 준공함

- 이번 공사는 국제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23년 6월부터 총 370억 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전면 항로 구간을 수심 16m까지 준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준설량은 788만³m에 달함
- 공사 완료로 8천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상시 입·출항 여건이 확보되며, 인천신항의 항행 안전성과 운영 안정성이 개선됨
- 아울러 준설토는 인천신항 투기장에 투기, 향후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매립재로 활용되며, 신항 배후 물류 기능 확충과 수도권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경기일보(2025.12.23.),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3580324\(2025.12.23. 검색\)](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3580324(2025.12.23. 검색))

2 통합관제 도입으로 소형선 안전관리 강화⁴⁾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함
 - 해당 시스템은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접안시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공사는 스마트폰과 CCTV 연동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6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인천항 계류 종합상황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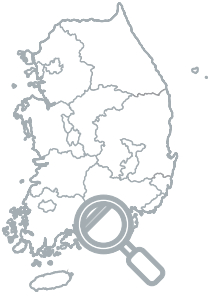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3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25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5.12.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3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25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5.12.23.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12월 5일 광양항의 날 제정 및 미래 항만 비전 공유⁵⁾

- 광양시는 광양항 개항일인 12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번째 ‘광양항의 날’ 기념식을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함**

 - 이번 행사는 시민 설문조사와 항만 관련 기관·종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념일이 공식 제정된 뒤 처음 열린 행사임
 - 항만 관계자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광양항의 역할을 되짚는 계기임
- 급변하는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한 미래 항만 전략이 시민과 공유됨**

 - 이번 행사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경제 거점으로 기능해 온 광양항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북극항로 개척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됨
 - 본식 이후에는 ‘북극항로 시대, 광양항의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광양항의 전략적 입지와 성장 가능성을 설명함
 -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국제물류 환경 변화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음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미래 5대 핵심사업을 구체화하여 발표함**

 - YGPA는 5대 핵심과제, ① 북극항로 개척, ② AI 경영관리, ③ AI 항만 운영, ④ 친환경 항만, ⑤ 스마트 드론에 대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는 시간을 가짐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광양뉴스(2025.12.05.), [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20\(2025.12.26. 검색\)](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20(2025.12.26.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제9회 울산항 항만안전 콘퍼런스' 개최⁶⁾

- 📍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항만안전 콘퍼런스를 통해 안전기술 고도화와 친환경·미래 물류를 포괄한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방향을 논의함
- UPA는 11월 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항만안전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해운·항만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함
- 콘퍼런스는 '안전과 혁신이 만드는 울산항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안전항만으로서 울산항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됨
- 기조연설에서 산업안전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항 기술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도입 사례를 통해 항만 적용 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함
- 특별세션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도입 사례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 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물동량 확보와 대외 협력 필요성을 제시함
- 패널 토론에서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점검·하역·근로자 안전 관리 측면의 개선 방향과 현장 협력 필요성을 공유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27.),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5696>(2025.12.23. 검색)

2 울산 앞바다 자율운항선박 성능 실증 해역 지정⁷⁾

울산항 일대가 대한민국 제1호 자율운항선박 성능 실증 해역으로 지정됨

-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 울산항 일대 약 499km²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힘
- 울산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 인근을 포함하되, 도선점(Pilot Station) 반경 500m 이내 구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외됨
-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행정조치임

울산시가 해역 관리청 권한을 확보하면서 자율운항선박의 대규모 해상 실증이 가능해짐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울산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주도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
-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과 달리 실제 상선이 운항하는 항로를 포함한 해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실증이 가능해졌으며, 자율운항선박 성능 실증의 공식화와 지역 주도의 실증 체계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짐

울산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의 핵심 거점으로서 상용화 기반을 강화함

- 울산은 '20년부터 총사업비 1,603억 원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옴
- '22년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연구센터를 준공하고 69톤급 실증 선박 해양누리호를 통해 핵심 기술을 축적함
- 향후 1단계 기술개발 성과 검증과 후속 상용화 사업 추진, 관련 기업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경상일보(2025.12.02.),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166>(2025.12.23.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평택항 물류 접근성 개선 기대⁸⁾

-  국토교통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

 - 이번 사업은 서평택JCT부터 남안산IC까지 구간을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임
 -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2013년 개통 이후 수도권 서남부 물류·통근 축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가 이어져 왔음
-  이번 확장 사업으로 평택당진항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물류 이동 축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부는 이번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 정체 완화와 인천 및 평택·당진항 물동량 증가, 인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을 연결하는 물류 이동 축의 기능이 강화되어 항만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 병목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이 지역 경제와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8) 이투데이(2025.12.18.),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5920>(2025.12.24. 검색)

6) 포항항



① 북극항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⁹⁾

- 경상북도청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자 ‘북극항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내 주요 크루즈 선사, 관계기관, 학계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으며, 북극항로 현황 진단과 함께 미래 해운 프런티어의 도전과 기회, 크루즈 수요 시장 분석을 통한 운항 전략, 시범사업을 통한 북극해 크루즈 가능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됨
 - 이와 함께 북극항로 연계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 항만 인프라 및 정박 여건 분석, 문화·관광 산업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짐
- 한편, 포럼을 주관한 경상북도 관계자는 북극항로를 관광·연구·산업 전반에서 지역 성장을 이끌 전략적 기회로 평가하며, 해당 항만을 북극항로와 크루즈 산업이 결합된 동북아 신해양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경상북도청 보도자료(2025.12.01.), [https://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EB%B3%B4%EB%8F%84%EC%9E%90%EB%A3%8C&cmd=2&Start=0&B_NUM=505843101&B_STEP=505843100&B_LEVEL=0&key=3&word=%EC%98%81%EC%9D%BC%EB%A7%8C%ED%95%AD&p1=0&p2=0&V_NUM=109&tbbcode1=bbs_bodo\(2025.12.22. 검색\)](https://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EB%B3%B4%EB%8F%84%EC%9E%90%EB%A3%8C&cmd=2&Start=0&B_NUM=505843101&B_STEP=505843100&B_LEVEL=0&key=3&word=%EC%98%81%EC%9D%BC%EB%A7%8C%ED%95%AD&p1=0&p2=0&V_NUM=109&tbbcode1=bbs_bodo(2025.12.22. 검색))

2 해경 전용부두 활용으로 함정 이전 추진¹⁰⁾

-  포항해양경찰청은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일만항 해경 전용부두로 함정을 이전할 계획이라 밝힘
 - 기존 동빈내항 해경 전용부두는 규모가 작아 여객선터미널 인근 부두를 나눠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함정 정박과 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옴
 - 이에 총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해 '21년 8월 해경 전용부두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 11월 6일 해당 부두를 준공함
 - 부두는 함정 13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함정승조원시설, 율타리·CCTV, 전기차 충전시설, 옥외저장소 등 지원시설을 건립 중임
-  한편, 기존 분산 정박 체계에서 전용부두로 이전하게 되면 정박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0) 연합뉴스(2025.12.09.),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9124900053?input=1195m>(2025.12.22. 검색)

7) 동해·묵호항



1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 지역사무소 신설¹¹⁾

-  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 지역사무소를 '26년 1월 강원 동해시 동해·묵호항에 개설·운영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23년부터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으로, 동해안 해양안전과 해양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임
 - 지역사무소 개설로 그간 부산권에 집중돼 있던 행정 기능이 강원권으로 분산되는 구조임
-  국가항만 동해·묵호항의 위상 제고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됨

 - 지역사무소가 들어서면 강원 유일의 국가항만인 동해항과 묵호항의 행정·관리 기능이 강화될 전망임
 - 동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됨
 - 대화도 및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인접 해역에 대한 안전 지원과 해양주권 수호 역량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바다 면적의 약 35%를 관할하는 핵심 어업 관리 기관임

 - 신설 지역사무소에는 어업지도선 4척과 직원 80여 명이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임
 - '26년 1월에는 4,500톤급 어업지도선 2척과 직원 40명이 우선 배치되며, '30년까지 1,000톤급 어업지도선 2척과 직원 40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임
-  항만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동시에 기대됨

 - 지역사무소는 우선 묵호해양수산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 임시 운영되며, '30년까지 동해항 북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로 이전·신축될 예정임
 - 강원도는 상주 인력 증가와 항만 기능 강화에 따라 연간 4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강원도는 이번 사무소 개설이 해상 안전 대응력 강화와 함께 동해·묵호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뉴스1(2025.12.06.), [https://www.news1.kr/local/kangwon/6010345\(2025.12.16. 검색\)](https://www.news1.kr/local/kangwon/6010345(2025.12.16. 검색))

8) 목포항



① 전남도, 북극항로 시대 대비 목포항 미래 발전 전략 논의¹²⁾

- 전남도가 12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해양항만활력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북극항로시대를 맞아 여수·광양·목포항 등 무역항의 발전 전략과 정책을 논의함

 - 토론회에는 전남도와 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함
 - 김현덕 전남도해양항만활력추진단장은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발표하며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서 전략적 포지셔닝과 기술 혁신을 강조함
- 목포항은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전용부두 개발을 통한 복합항만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 김화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RE100과 ESG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함
 - 해상풍력 발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전용부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임영태 국토연구원 박사는 목포항이 수출입 물류 중심 기능을 유지하되 항만배후 단지를 상업·주거·업무·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전남도는 각 항만의 물동량 구조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만을 육성할 계획임

 - 토론회에서는 부두 인프라 개선과 자동화 추진, 항만-산단 연계 물류체계 강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어짐
 -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항만의 물동량 구조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만을 육성할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2) 연합뉴스(2025.12.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2125300054?input=1195m>(2025.12.24. 검색)

9) 대산항



1 서산시, 물류기업 경영 안정 지원 확대¹³⁾

- 서산시가 대산항 기반 컨테이너 물류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억 9,000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함
 - 서산시는 12월 2일 대산항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 6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침체가 지속되며 대산항 기반 물류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함
 - 시는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물류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3개 지원사업을 선정함
 - 지원사업은 ‘수출용 공컨테이너 수급 내륙운송비 지원’, ‘컨테이너 경과 보관료 지원’, ‘친환경 장비 도입 투자금 지원’으로 구성됨
 - 지원 대상은 화주사 3곳과 항만하역사업자 1곳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3) 뉴시스(2025.12.0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2_0003425497(2025.12.23. 검색)

2 서산시, 항만 활성화 위한 해운·항만·물류 기업 간담회 개최¹⁴⁾

 서산시가 대산항의 국제물류 거점 도약을 위해 해운·항만·물류 기업을 초청해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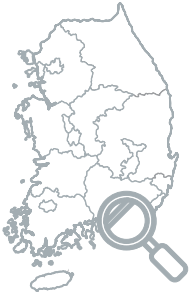
- 서산시는 12월 4일 서울역 럭키콘퍼런스에서 대산항 해운·항만·물류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는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관계자와 선사·화주·포워더·하역사 등 항만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함
- 석유화학산업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우려 속에서 대산항 이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신규 항로 개설과 화물 유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형 컨테이너 및 원양 항로 신규 개설, 야간 도선 확대 등 항만 서비스 개선 방안이 제시됨
- '26년 9월 준공 예정인 대산항 5부두와 연계해 컨테이너 선박 접안 규모 상향과 하역 설비 확충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추진할 계획임
- 선사와 화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등 행·재정적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예·도선 등 항만 서비스 전반의 개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뉴스1(2025.12.05.),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998998\(2025.12.23. 검색\)](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998998(2025.12.23. 검색))

10) 마산항



1 해양수산부, 마산만 매립 이력 전수조사를 통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정비 추진¹⁵⁾

● 마산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역대 매립 이력 전수조사가 추진됨

- 해양수산부는 마산만에서 이뤄진 과거 매립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매립이 진행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수조사를 추진함
- 이번 조사는 신규 용역 발주가 아닌 기존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연구(’21~’30)’의 과업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마산만 일대 구간별 매립 허가 시점, 위치와 면적, 사업 주체, 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임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 범위를 확대해 기록 관리의 공백을 보완함

- 해당 용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공유수면매립 수요 분석과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임
- 해수부는 기존의 기초 자료 조사 과업을 세분화해 누락되거나 분산된 매립 기록을 재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할 계획임

● 기록 부재에 따른 정책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투명성을 제고함

- 그간 마산만 매립 현황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청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음
- 매립 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전체 매립 이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매립을 추진해 정책 정당성과 투명성 훼손 논란이 제기됨
-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기록물 관리 원칙에 따라 해양 정책 관련 기록을 정비하고, 향후 매립 정책 수립과 행정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임

● 향후 매립 정책 수립과 연안 관리의 기초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를 본격 착수해 매립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임
- 정비된 자료는 향후 공유수면매립 정책 마련과 연안 공간 관리, 지역사회 소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마산만 매립 이력 정리는 해양환경 관리와 항만·연안 개발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경남도민일보(2025.12.18.),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831>(2025.12.26.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무역흑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¹⁶⁾

- 📌 중국의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해 시장 예상치(3.8%)를 상회하면서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함
 - 미·중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증가함
 - 11월 기준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8.6% 감소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9.0% 줄어듦
 - 반면,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각각 8%, 15% 이상 증가함
 - 수입은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내수 압박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1.9% 증가해 시장 전망치(3.0%)를 하회함
- 📌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합의 이행 측면에서는 더딘 출발을 보이고 있어 미·중 간 휴전 국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와 펜타닐 유통 단속 협력에 나섬
 - 11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494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10월 대비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은 11월 전년 대비 13% 증가한 81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10월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연말까지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구매하겠다는 약속 이행은 더딘 흐름을 보임
 - '26년에도 수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강화할 경우 수출 증가세가 장기 평균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휴전 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CNBC(2025.12.07.), <https://www.cnbc.com/2025/12/08/china-export-imports-trade-november-us-tariff-truce-.html>(2025.12.23. 검색)

2 하이난 전역 특별 통관 운영 개시¹⁷⁾

-  중국은 하이난을 단일 항만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섬 자체를 포괄하는 고수준 자유무역 지대로 전환하여 특별 통관 운영을 개시함
 - 중국에는 총 22개의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도시 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역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반면 하이난은 섬 전역을 하나의 통합된 자유무역항으로 전환해 독자적인 통관·조세·규제 체계를 구축함
 - 하이난의 총면적은 약 3만 5,000km²로, 중국 내 156개 보세구역 총면적을 합친 규모보다 70배 이상 큰 수준임
-  새로운 정책 체계 아래에서 하이난은 특별 관세 구역으로 기능하며,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무관세 적용 품목 비중은 기존 21%에서 전체 관세 품목의 약 74%로 확대되며, 대부분의 생산 설비와 핵심 원자재가 포함됨. 이에 따라 기계와 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약 20% 절감될 수 있음
 - 하이난에서 최소 30%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품은 중국 본토로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며, 하이난에 등록돼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장려 산업 기업의 법인세율은 15%로 제한하여 중국 본토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함
 - 또한 하이난 인재 목록에 포함된 전문 인력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15%로 제한돼 중국 본토 최고세율 45% 대비 크게 낮아졌으며, 통관·수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다수의 중고 기계·전기 제품에 대한 허가 요건이 폐지돼 행정 장벽이 완화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Asia Times(2025.12.21.), <https://asiatimes.com/2025/12/chinas-hainan-free-trade-port-heralds-new-era-of-openness/>(2025.12.23.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메탄올 연료 공급사 3곳 선정, 친환경 벙커링 허브 전환 추진¹⁸⁾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26년부터 싱가포르항에서 선박용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5년 11월 24일 발표함

 - 선정된 사업자는 Global Energy Trading, Golden Island, Petro China International (Singapore) 등 3개사임
 - 이번 선정은 '24년 라이선스 도입 계획 발표와 '25년 3월 메탄올 벙커링 표준 제정 이후 진행된 공개 모집 절차의 결과임
- MPA는 총 13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신뢰성, 운영 준비도, 안전관리 체계, 메탄올의 지속가능성 인증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함

 - 메탄올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로 평가되며, 해운업계의 저탄소 연료 전환 수요 증가가 이번 신청 확대 배경으로 언급됨
 - 선정된 사업자의 라이선스는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유효하며, MPA는 해당 기간이 초기 메탄올 벙커링 시장 형성과 공급망 구축, 투자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항은 '23년 세계 최초 선박-컨테이너 메탄올 벙커링을 완료했으며, '24년에는 화물 작업과 병행한 메탄올 벙커링을 실시한 바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The Business Times(2025.11.24.), <https://www.businesstimes.com.sg/companies-markets/transport-logistics/three-companies-picked-supply-methanol-singapore-port-drive-be-sustainable-bunkering-hub>(2025.12.23. 검색)

2 나고야항, 국제 경쟁력 강화 위해 디지털화·탈탄소 전략 추진¹⁹⁾

-  일본 중부 산업권을 배후로 둔 나고야항은 '24년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량이 259만TEU로 전년 대비 2% 증가하며 일본 3위를 기록함

 - 아울러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와 함께 디지털 기술 도입, 탄소중립 항만(CNP) 구축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
-  나고야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도비시마(飛島) 부두 10선석과 나베타(鍋田) 부두 3선석으로 구성됨

 - 도비시마 북부는 북미 서안, 인도차이나, 싱가포르 항로 중심으로 '24년 9만TEU를 처리했으며, NCB(Nagoya Container Berth)는 북미 서안·동남아 항로를 중심으로 57만TEU를 기록, 도비시마 남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항로 중심으로 25만TEU를 처리함
 - 도비시마 남부의 TCB(Tobishima Container Berth)는 일본 최초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로, 원격 자동 RTG(Rubber Tyred Gantry crane)와 AGV를 도입해 '24년 58만TEU를 처리함
 - 나베타 부두의 NUCT(Nagoya United Container Terminal)는 중국, 한국, 대만 항로 중심으로 '24년 110만TEU를 처리하며 단일 터미널 기준 일본 최대 물동량을 유지함
-  NCB에서는 안벽 내진 보강과 함께 수심 15m 증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베타 부두에서는 RTG 원격화와 갠트리 크레인 3기 교체가 추진되고 있음

 - TCB는 컨테이너 터미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하역 장비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임
-  나고야항은 게이트와 항만 통합 터미널 시스템을 연계해 반출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있으며, '25년에는 나베타 부두가 국토교통성의 CNP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함

 - 항만 전반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대응 RTG 도입과 수소 공급 인프라 검증 등 탈탄소 전환이 병행 추진되고 있음

19) The Japan Maritime Daily(2025.12.11.), <https://www.jmd.co.jp/article.php?no=310781>(2025.12.23. 검색)

나베타(鍋田) 부두에서
교체 중인 갠트리 크레인



자료: The Japan Maritime Daily(2025.12.11.), <https://www.jmd.co.jp/article.php?no=310781>(2025.12.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러시아산 원유 운송 선박, 인도 항만에서 보험 검증 지연으로 양하 보류²⁰⁾

-  서방 제재 대상 선박이 인도 파라딤 항에서 러시아 보험사가 제공한 보험 증서의 온라인 검증 지연으로 화물 양하가 보류됨
 - 유럽연합과 영국의 제재 대상인 아프라막스급 선박 Tiger 6호가 11월 23일 화물 양하 예정이었으나 수요일 오후 파라딤 항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LSEG 데이터에 나타남
 - 인도는 올해 초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규정을 강화했으며, 특히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자주 사용되는 노후 선박과 이른바 그림자 선대를 집중 관리하고 있음
-  인도는 4월부터 위조문서 방지를 위해 비IG 보험사의 보험 증서 온라인 검증을 의무화함
 - 4월부터 인도는 국제그룹 회원이 아닌 보험사가 보장하는 선박에 대해 온라인 보험 검증을 요구하여 위조문서가 인도 항만 당국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많은 그림자 선대 선박들이 비IG 보험사의 보장을 받고 있음
 - 러시아 Soglasie Insurance Co Ltd가 인도국영석유공사로 향하는 원유를 운송하는 이 선박에 보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  인도는 러시아산 할인 원유 구매 지속을 위해 러시아 보험사 8개를 포함한 19개 비IG 보험사를 인정하고 있음
 - 인도는 러시아 보험사 8개를 포함한 19개 비IG 보험사의 선주책임보험을 인정하여 러시아산 할인 원유 구매를 지속하고 있음
 - 이번 양하 지연은 인도가 항만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0) Marinelink(2025.11.26.), [https://www.marinelink.com/news/russian-oil-cargo-discharge-indian-port-532928\(2025.12.24. 검색\)](https://www.marinelink.com/news/russian-oil-cargo-discharge-indian-port-532928(2025.12.24. 검색))

4 제벨 알리항, 역대 최대 벌크화물 처리량 달성²¹⁾

 프랑스 해운 및 물류 그룹 CMA CGM이 사우디아라비아의 Red Sea Gateway Terminal(RSGT)과 제다 이슬람 항만 4번 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서를 체결함

- DP World의 제벨 알리항이 '25년 10월 63만 톤의 벌크화물을 처리하여 지난 20년간 최대 월간 처리량을 기록함
- 이번 급증은 UAE와 광역 걸프 지역의 강력한 산업 및 건설 활동을 반영하며, 철강 대규모 수입과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및 DWC 공항 등 메가 프로젝트가 수요를 견인함
- 이번 기록은 '24년 전년 대비 23% 성장하여 536만 톤에 달한 벌크화물 처리량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임

 제벨 알리항은 UAE의 제조 및 물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략적 복합항만으로 입지를 강화함

- Shahab Al Jassmi DP World GCC 최고상업책임자는 UAE가 제조 및 물류 역량을 가속화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고객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제벨 알리항의 벌크화물 운영은 Jafza의 통합 물류 생태계를 활용하여 산업 벤처를 위한 중량 및 초대형 화물 운송에 집중함
- 복잡한 화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의 역량은 글로벌 무역 지도에서 전략적 복합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제벨 알리항의 발전은 두바이 경제 어젠다 D33과 오퍼레이션 300Bn 등 UAE의 핵심 국가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 제벨 알리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중 화물 성장은 UAE 경제 어젠다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항만은 경제 다각화와 글로벌 무역 리더십을 위한 국가 목표의 최전선에 위치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1) Maritime Gateway(2025.11.25.), <https://www.maritimegateway.com/jebel-ali-port-achieves-historic-breakbulk-throughput-reflecting-uaes-industrial-surge/> (2025.12.24. 검색)

3) 미주



① 파나마 운하, 가뭄 장기화에 따른 운영 축소²²⁾

- 가뭄 장기화로 파나마 운하 통과 제한이 지속되며 미국 해상 물류비 부담이 증가함
 - 파나마 운하 수위 하락으로 선박 통과 횟수와 적재량이 감소하며 운하 운영이 축소됨
 - 미국은 파나마 운하 최대 이용국으로 전체 이용량의 73%를 차지하고,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 연간 약 2,700억 달러 규모 화물이 운하를 경유함
 - 맥킨지앤컴퍼니는 운하 제한으로 미국 해상 운송비가 약 5%, 연간 11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운하 제한 영향은 미국 동부·걸프만 항만과 소비재 중심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됨
 - 아시아발 컨테이너 화물 의존도가 높은 미국 동부와 걸프만 항만에서 물동량 감소 영향이 두드러짐
 - 파나마 운하를 통해 미국 중부·동부로 기항하던 컨테이너선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함
 - 건화물선과 일반 화물선 운송비는 각 14%, 차량 운반선은 12% 증가한 반면, LPG·화학제품·냉동 컨테이너는 3~5%,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3% 이하 증가율을 기록함
 - 코트라는 운하 제약 장기화를 고려해 대체 항로 검토, 출하 시점 조정, 선사와의 계약 재협상 등 공급망 대응 필요성을 제시함

파나마운하 우회항로 비교



자료: 더구루(2025.12.1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5519\(2025.12.23. 검색\)](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5519(2025.12.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2) 더구루(2025.12.1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5519\(2025.12.23. 검색\)](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5519(2025.12.23. 검색))

4) 유럽



1 벨기에 총파업으로 유럽 항만 네트워크 전반에 혼잡 우려²³⁾

- 벨기에의 철도와 운송, 공공 부문에 걸친 3일간의 총파업이 안트워프항과 베네룩스 물류 회랑을 통한 화물 흐름을 교란시키고 이미 혼잡과 용량 한계에 직면한 유럽 항만 네트워크에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철도 운영이 중단되고 항만 노동력이 축소된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물 계획 담당자들은 또 다른 지연과 선박 적체, 내륙 운송 병목에 직면함
 - 안트워프와 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유럽 3대 컨테이너 허브는 이미 심각한 혼란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박 도착 지연과 야드 공간 부족, 내륙 네트워크의 적체 처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벨기에 파업은 이러한 압박을 증폭시키고 선박 스케줄 및 북유럽 광역 공급망에 연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안트워프-브뤼헤항은 연중 내내 육상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터미널이 거의 만선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음
 - 10월의 도선사 태업으로 상당한 선박 대기가 발생했으며, 벨기에 철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반적으로 내륙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가 터미널 야드에 축적되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처리 용량이 제한될 것임
 - 이러한 혼잡은 안트워프와 연안 운송, 바지선, 철도 서비스로 긴밀하게 연결된 로테르담과 함부르크로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임
- 유럽의 국지적 혼잡이 글로벌 차질로 확대되며 운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선박이 한 주요 게이트웨이에서 접안 시간을 놓치면 다른 항만에서도 후속 접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전체 항차에 걸쳐 지연이 배가됨
 - 선사들은 손실된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항만 간 속도를 높여 상당히 많은 번거유를 소비하게 되며, 이러한 추가 연료 비용은 불가피하게 운임 구조에 반영됨
 -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도 다수의 노동 쟁의가 계획되어 있어 12월까지 추가적인 지역 차질이 예상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3) Metro Shipping(2025.11.27.), <https://metro.global/news/belgiums-national-strike-could-trigger-congestion-across-europes-port-network/>(2025.12.24. 검색)

2 HMM, 북유럽 항로에 허브 앤 스포크 전략 도입 예정²⁴⁾

-  HMM이 12월 15일 내년 4월부터 아시아-북유럽 항로에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도입한다고 밝힘
 - HMM은 기항 항만 수를 줄이고 주요 허브 항만에 집중하면서 피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HMM과 일본 ONE, 대만 양밍으로 구성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서비스 운영 계획을 공개함
-  북유럽 항로 구조조정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기항지를 대폭 축소하고 주요 허브 항만에 집중함
 -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현재 북유럽 항로의 다수 항만 기항 방식에서 화물량이 집중된 주요 허브 항만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항지 수를 축소함
 - FE3 서비스는 기항지가 11개에서 8개로 간소화되어 중국과 유럽의 주요 허브를 연결하는 고속 회랑 역할을 하게 됨
 - FE4 서비스는 부산항을 동북아시아 핵심 허브로 설정하고 북유럽 주요 항만으로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항지를 13개에서 5개로 축소하여 화물 운송 시간을 단축함
-  허브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항만들을 위해 새로운 피더 서비스를 공동 출범할 예정임
 -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3개 사는 가오슝과 샤먼을 위한 새로운 피더 서비스를 공동 출범할 계획임
 - 이 서비스는 부산을 환적 허브로 활용하며 부산항의 화물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HMM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항로 변경이 아니라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4) Asia Business Daily(2025.12.15.), [https://cm.asiae.co.kr/en/article/2025121515314615992\(2025.12.24. 검색\)](https://cm.asiae.co.kr/en/article/2025121515314615992(2025.12.24. 검색))

5) 오세아니아



1 호주 포트헤들랜드항, 예인선 실시간 위치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항만 운영 안전성 강화²⁵⁾

-  서호주 포트헤들랜드항은 예인선단을 대상으로 Trelleborg Marine and Infrastructure의 SafeTug(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을 시작함

 - 이번 구축은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단일 항로 기반 고위험 운영 환경에서 정밀한 선박 조정 능력 확보가 목적임

 -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이 이용하는 단일 항로를 운영하며 세계 최대 수준의 철광석 수출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임
 - 대형 선박의 연속적인 입출항과 항로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예인선 간 정확한 위치 공유와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임
 - 이번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제약 조건하에서 해상 작업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시스템은 기존 AIS 기반 추적 한계를 보완해 실시간 운영 대응력을 강화함

 - SafeTug 시스템은 기존 AIS 기반 위치 추적에서 발생하던 지연 문제를 개선해 예인선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이를 통해 예인 작업 중 상황 인지 정확도가 향상되고, 항만 내 해상 작업 전반의 대응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운영은 고위험 해상 작업에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됨
-  SafeTug는 Trelleborg의 SafePilot 클라우드 서버 및 파일럿 휴대용 단말과 연계돼 접안·이안·접근 과정 전반에서 공동 운영 화면을 제공함

 - 파일럿과 예인선 승조원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정 오류를 줄이고 협업 효율을 제고하는 구조이며 이는 디지털 기반 항만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로 평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²⁵⁾ Smart Maritime Network(2025.12.17.), <https://smartmaritimenetwork.com/2025/12/17/port-of-port-hedland-towage-fleet-installs-real-time-positioning-system/> (2025.12.26. 검색)

6) 아프리카



1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 LNG 수입 터미널 신설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추진²⁶⁾

■ '25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항만 운영기관인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와 WASAA Gases·중앙에너지기금 합작법인(JV) 간 25년간의 터미널 운영자 계약이 체결됨

- 이번 계약은 기존 항만 부지 내 액화석유가스(LPG) 전용 터미널을 개발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랜드(약 7,500만 달러) 규모로 책정됨

■ 연간 대규모 처리 능력을 갖춘 LPG 전용 터미널이 신규 조성될 예정임

- 합작법인은 Island View 구역 LOT 100 부지에 저장 용량 5만m³ 규모의 LPG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 해당 터미널은 시간당 최대 800m³의 가열 LPG 혼합물을 출하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임
- 100% 부탄, 100% 프로판, 혼합 LPG 등 표준 LPG 제품 전반을 저장·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개발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사업 자원 조달 안정성이 확보됨

-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는 본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확약하고 주선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함
- 이를 통해 프로젝트 투자 유치와 금융 구조 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기반이 마련됨
- 합작법인은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사업 실행 가능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함

■ 에너지 수입 거점 다변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기대됨

- 해당 터미널은 '27년 4분기 상업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Richards Bay, Saldanha Bay, Port Elizabeth 등에 집중된 LPG 수입 구조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임
-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 수입 항만 구조가 다변화되고 중장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6) Engineering News(2025.12.12.),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25-year-deal-signed-for-new-port-of-durban-lpg-terminal-2025-12-12\(2025.12.26. 검색\)](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25-year-deal-signed-for-new-port-of-durban-lpg-terminal-2025-12-12(2025.12.26.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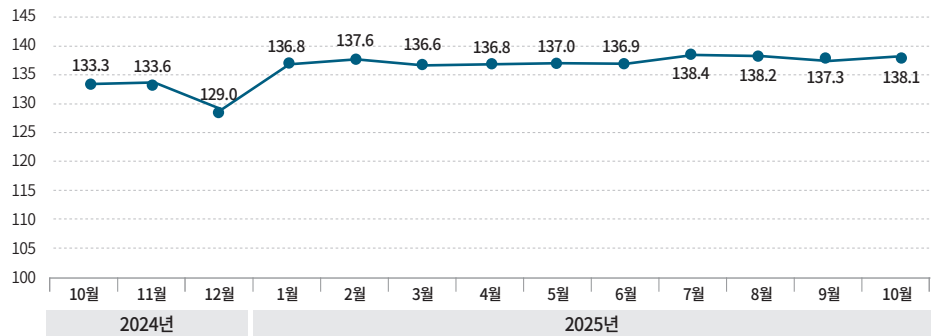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1 '25년 10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6% 증가²⁷⁾

- '25년 10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138.1p를 기록함
- 전월 대비 하락분을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만회하였으나, 중국과 유럽 항만의 감소세로 세계 처리량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2.3p로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함
 - 유럽 항만의 처리량은 111.2p로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3.3	133.6	129.0	136.8	137.6	136.6	136.8	137.0	136.9	138.4	138.2	137.3	138.1	0.6	3.6
China Index	148.1	145.1	136.6	153.8	156.4	152.1	152.5	151.8	150.8	150.7	151.3	152.9	152.3	-0.4	2.8
North Range Index	115.7	114.4	108.5	114.7	113.0	116.0	117.5	118.5	117.3	119.6	116.4	114.4	111.2	-2.8	-3.9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025>(2025.12.2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7) ISL(2025.11.27.),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025>(2025.12.22. 검색)

2 '26년 컨테이너 시장 어려움 지속 예정²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수에즈 운하 항로 재개가 맞물리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26년에도 컨테이너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수에즈 운하 재개는 화주와 선박 운행사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수익성이 높은 주요 항로의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과잉 공급된 선박을 통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임
- 수에즈 운하가 재개될 경우 희망봉 우회 항로로 흡수됐던 선박이 다시 시장에 풀리게 되나, 항로 복귀 시점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시장 혼란의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대규모 신조선 투입이 이어지면서, 올해 주요 동서 항로 운임은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상태임
- 이러한 가운데 컨테이너 선박 과잉은 '26~'30년 5년간 연평균 약 23% 수준으로 추정되며, '29년에는 약 30%에 근접해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18년 관세 도입 이후 생산기지 다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2월부터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 체제 아래 허브 앤 스포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더 많은 선사들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되는 제조 거점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임
- 이들 지역 항만은 대형 선박 기항 횟수를 줄이고 소형 선박을 활용한 환적 연결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요 지역에서 본선 서비스와 연계 선박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합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는 러시아와 무역을 확대 중인 인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 반대로 수입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세는 일시 철회됐다가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8) Seatrade Maritime(2025.12.08.),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hallenging-market-will-lead-into-tough-new-year>(2025.12.23. 검색)

2) 양곡



1 '25년 11월 주요 곡물의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가격은 곡물별 수급 여건 차이에 따라 전월 대비 혼조세를 보임²⁹⁾

- 
밀 가격은 197달러/톤으로 전월(188달러/톤) 대비 4.9%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203달러/톤) 대비로는 3.0% 하락한 수준을 나타냄

 - '25년 들어 밀 가격은 190~210달러/톤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흑해 지역 공급 안정과 글로벌 재고 부담이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대두 가격은 381달러/톤으로 전월(376달러/톤) 대비 1.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366달러/톤) 대비 4.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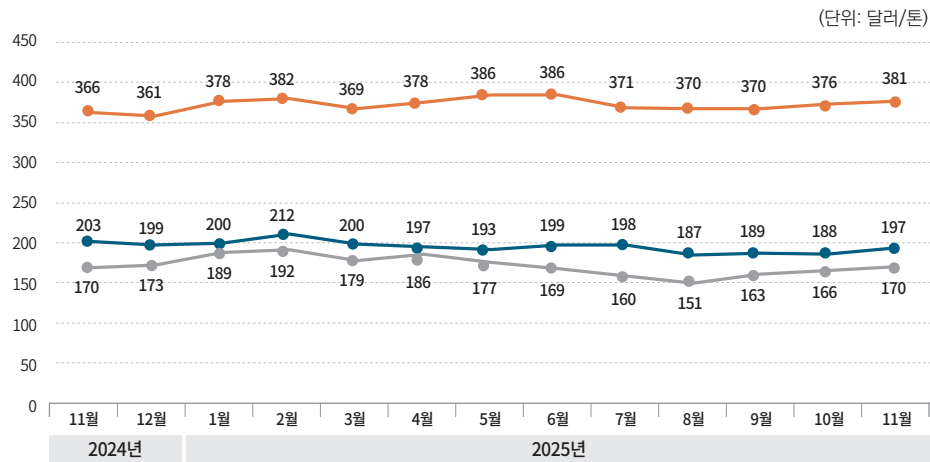
 - 대두는 남미 작황 불확실성과 미국 내 수요 견조세가 맞물리며 '25년 상반기 이후 370달러/톤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옥수수 가격은 170달러/톤으로 전월(166달러/톤) 대비 2.0%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170달러/톤)과 비교해 보합 수준을 기록함

 - 옥수수는 '25년 1분기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사료·에탄올 수요와 물류비 변동 영향으로 단기 반등한 모습임
- 
전월 대비로는 밀·대두·옥수수 모두 상승 전환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는 밀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음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11.30.), <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12.23. 검색)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203	199	200	212	200	197	193	199	198	187	189	188	197	4.9	-3.0
대두	366	361	378	382	369	378	386	386	371	370	370	376	381	1.5	4.3
옥수수	170	173	189	192	179	186	177	169	160	151	163	166	170	2.0	-0.2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인도 곡물 비축 확대에 식량 시장 안정성 강화³⁰⁾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쌀 비축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식량 재고 확보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인도의 쌀 재고 증가는 국내 수급 안정뿐 아니라 국제 곡물시장 전반의 심리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쌀과 함께 소맥(밀) 비축 물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도 정부의 주요 곡물 가격 관리 여력이 확대된 점이 주목됨
 - 이는 곡물 가격 급등 시 시장 개입을 통한 공급 조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최근 글로벌 곡물시장이 기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물류 차질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인도의 재고 확대는 식량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 쌀 수출 제한과 같은 정책 조정 가능성도 병행되면서, 국제 시장에서는 공급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시장에서는 인도의 곡물 비축 확대가 단기적인 가격 급등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곡물의 가격 변동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함
 - 이에 따라 글로벌 곡물 가격은 공급 리스크보다 재고 정책과 국가별 시장 개입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0) Reuters(2025.12.23.),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s-rice-stocks-surge-record-high-paddy-procurement-climbs-2025-12-23/>(2025.12.23.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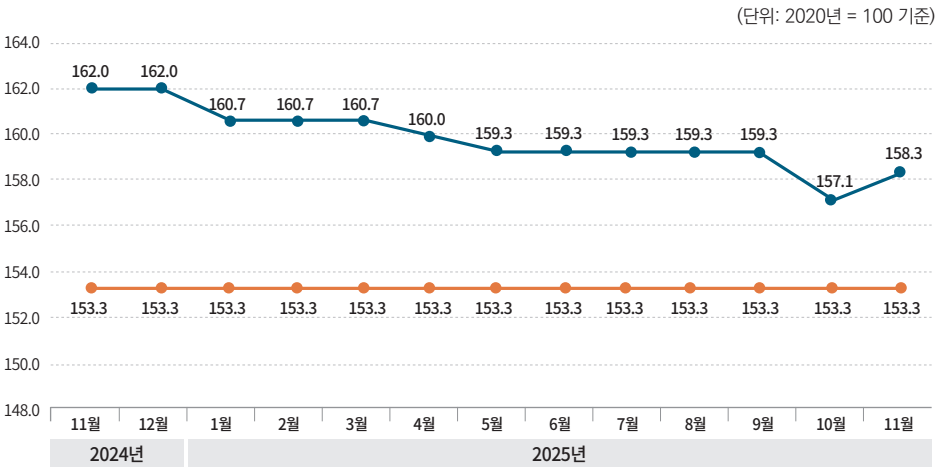


1 '25년 11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8% 증가

- '25년 11월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월 대비 0.8% 증가한 158.3p를 기록했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지난 12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번 11월 소폭 반등함
- 고로 시멘트는 지난 1년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	0.8	-2.3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내수 침체 심화에 시멘트업계 수출 확대 대응³¹⁾

-  건설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25년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3,650만 톤으로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고정비 부담과 경영 압박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시멘트협회는 '25년 시멘트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쌍용C&E·한라시멘트·삼표시멘트 등은 내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중남미 중심 수출 구조에서 아프리카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하며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시멘트는 중량 화물 특성상 운송비 부담이 커 장거리 수출의 수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베트남 업체가 인접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원거리 시장 공략이 불가피한 구조임
 - 그럼에도 공장 가동 중단 시 설비비 손실과 가동률 저하, 소성로 유지 및 탄소배출권 할당량 확보 문제가 발생해 업체들은 고정비 충당과 최소 생산 유지를 목적으로 수출을 불가피한 대응책으로 선택하고 있음
-  업계는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26년에도 시멘트 수요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수 의존 구조의 한계와 함께 수출 중심의 방어적 경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1) 조선비즈(2025.12.08.),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2/08/C5EXJSMKLFGLPHRARI43QLGGE/\(2025.12.26. 검색\)](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2/08/C5EXJSMKLFGLPHRARI43QLGGE/(2025.12.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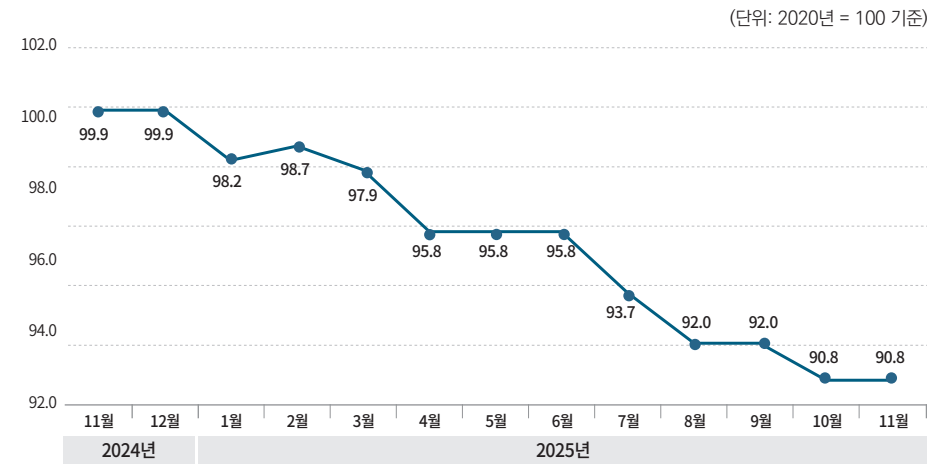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90.8p 기록

'25년 11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0.8p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9.9	99.9	98.2	98.7	97.9	95.8	95.8	95.8	93.7	92.0	92.0	90.8	90.8	0.0	-9.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6](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순환골재 품질인증 KS 체계로 통합 추진³²⁾

- 
건설공사 핵심 재료인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이원화된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그동안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과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 인증이 병행 운영되면서 인증 절차 중복과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 
국토부는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통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설산업 주무 부처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되고 KS 인증으로 통합 절차가 완료될 예정임
 - 이를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의 시장 유통 확대와 인증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제도 개편은 순환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설자재 품질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원 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2) 경향신문(2025.12.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51442001/amp\(2025.12.26. 검색\)](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51442001/amp(2025.12.26.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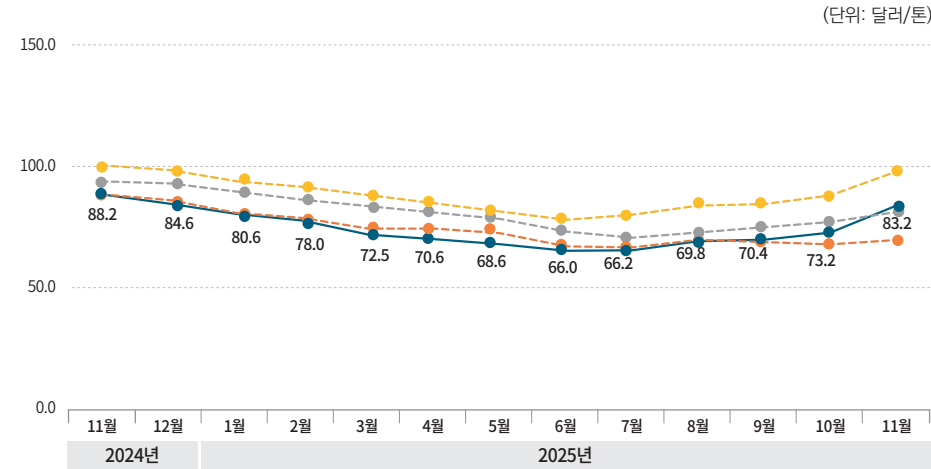


1 '25년 11월 유연탄 가격(뉴캐슬산) 전월 대비 큰 폭 증가

- '25년 11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83.2달러로 전월 대비 13.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함
 -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1월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기록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차드베이산(+2.0%), 칼리만탄산(+5.1%), 중국남부산(+12.1%)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석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88.2	84.6	80.6	78.0	72.5	70.6	68.6	66.0	66.2	69.8	70.4	73.2	83.2	13.7	-5.7
리차드베이	88.3	85.9	81.1	79.0	74.8	74.8	73.0	67.8	67.4	70.4	70.1	68.6	70.0	2.0	-20.7
칼리만탄	93.6	92.9	89.6	86.3	84.5	81.6	78.8	73.8	71.5	74.4	76.1	77.6	81.5	5.1	-12.9
중국남부	100.2	98.5	94.0	91.9	87.6	84.0	81.5	78.8	80.8	84.3	85.0	88.4	99.1	12.1	-1.0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2.22](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2.22) 검색)

2 국제에너지기구(IEA), '25년 석탄 연례 시장 보고서 발표³³⁾

IEA는 '25년 세계 석탄 수요가 전년 대비 0.5% 증가한 88억 5,0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전통적으로 석탄 수요를 이끌어온 인도에서는 이른 문순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수력발전 생산이 증가하면서 석탄 화력발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함
- 지난 15년간 연평균 6%씩 석탄 수요가 감소해 온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연방정부 정책 지원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속도가 둔화되며 '25년 수요가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은 수력·풍력 발전량 감소로 상반기 석탄 발전이 늘어나 '25년 수요 감소 폭이 약 2%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세계 최대 석탄 수요국인 중국은 '24년과 유사한 수준의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석탄 소비는 향후 몇 년간 정체를 보인 뒤 '30년까지 매우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전력 수요의 강한 증가는 석탄 소비를 일정 부분 지지할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과 원자력 확대, 액화천연가스 공급 증가로 전원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30년까지 가장 큰 석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로, 수요가 연평균 3% 증가해 누적 기준 2억 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가장 빠른 증가세는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 석탄 수요는 '30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증가할 전망임
- 다만 복합적인 에너지 전환 환경으로 향후 5년간 수요 전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평가됨

세계 석탄 생산량은 '2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0년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5년 석탄 생산량은 '24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반기 중국 석탄 생산이 증가세와 국내 수요와 정책 지원에 힘입은 미국의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보여짐
- 인도는 수요 부진과 폭우로 인한 작업 여건 악화로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생산 증가세가 '25년에 정체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는 국제 석탄 교역 위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됨
- 전반적으로 재고가 충분하고 세계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30년까지 세계 석탄 생산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변수는 중국의 정책 및 수요 변화로 평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3) IEA(2025.12.17.), <https://www.iea.org/news/global-coal-demand-has-reached-a-plateau-and-may-well-decline-slightly-by-2030>(검색일: 2025.12.23.)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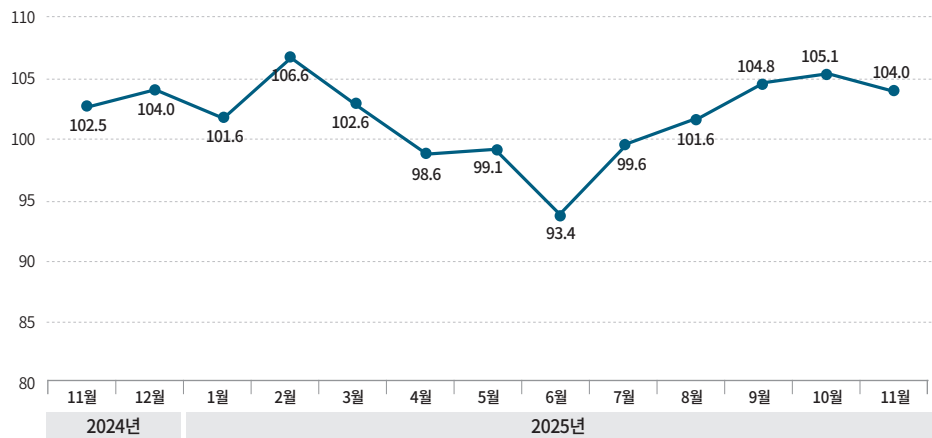


1 '25년 11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

’25년 11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4.0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세가 하락세로 전환됨

- 겨울철 감산 시즌에 돌입되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나, 8월 이후 톤 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해당 가격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99.1	93.4	99.6	101.6	104.8	105.1	104.0	-1.0	1.4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2.22](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2.22) 검색)

2 '26년 철광석 가격 톤 당 100달러 하회 가능성³⁴⁾

-  '26년 철광석 가격이 기니 시만두(Simandou)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으로 톤당 10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시만두 프로젝트는 '25년 11월 공식 가동에 돌입했으며, '28년까지 연간 약 1억 2,0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동 초기인 '26년에는 약 2,000만~3,500만 톤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글로벌 철광석 소비 증가분(연간 약 1%, 2,600만 톤)을 상회해 가격 하방 압력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시만두 프로젝트를 계기로 글로벌 철광석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됨

 - 시만두 프로젝트는 공급 증가를 넘어 중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기존 메이저 광산 중심 과점 체제에 변곡점을 만들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철광석 수입의 약 80% 이상을 호주와 브라질에 의존해 왔으나, 국영 구매 조직인 중국광물자원그룹(CMRG)을 통해 구매 창구를 단일화하며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임
 - 최근 CMRG는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BHP와의 장기 계약 과정에서 일부 품목 구매 제한이나 위안화 결제를 관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시만두 광산 가동 영향 등으로 '25년 글로벌 철광석 공급은 전년 대비 약 5,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철강협회의 조강 수요 전망과 철스크랩 소비를 감안하면 철광석 실수요 증가는 약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공급 과잉 폭이 2,00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며 '26년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0달러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됨
 -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 감산 정책, 미국 통화 정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 고점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시장 변화는 원료비 하락 측면에서 국내 철강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철강사의 원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4) 페로타임즈(2025.12.10.),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33>(2025.12.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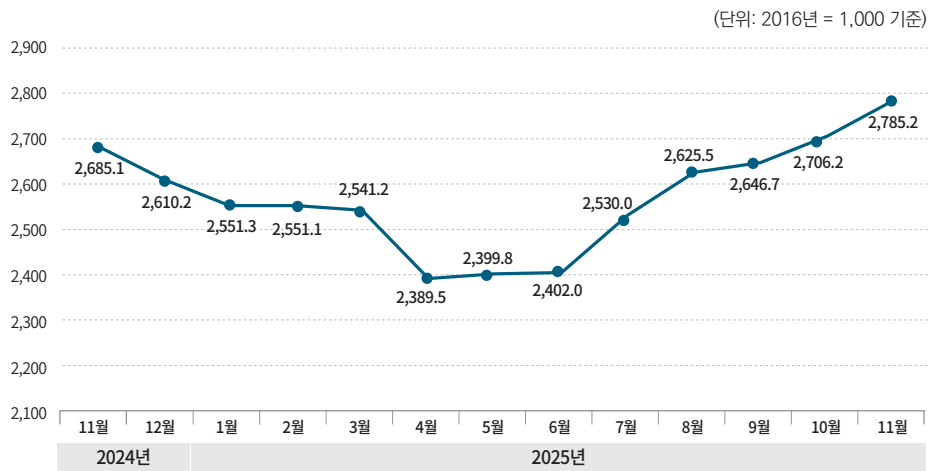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1월 광물종합지수는 2,785.2p로 5개월째 증가세

’25년 11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2.9% 증가한 2,785.2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685.1p) 대비 3.7% 증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9	3.7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12.26.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12.26.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핵심광물 재자원화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추진³⁵⁾

❖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자립 기반을 강화함

- 정부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희토류 5종 등 총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추진함
- 첨단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임

❖ 희토류 수급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와 지원 인프라를 가동함

-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희토류 수급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함
- 업계 지원을 위해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수급 위기 발생 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
- 해외자원개발 투자·용자 확대와 함께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를 병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이를 통해 단기 수급 위기 대응과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임

❖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금융·제도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함

- 정부는 원료·소재·제품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테스트베드 실증을 추진함
-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
- 민간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대출·보증을 제공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계기로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함
- 아울러 재자원화 원료 규제 합리화, 통계 시스템 정비, 정책금융 연계 강화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제고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5.10.3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591>(2025.12.26. 검색)

8) 목재



1 '25년 1~10월 원목 수입량은 123만 9천㎥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제재목,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보합세를 유지함
 - 제재목 수입량은 124만 3천㎥로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62,66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함
 - 합판(-7.0%), 파티클보드(-19.5%), 섬유판(-30.8%)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329만 9천 톤으로 0.1% 증가에 그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10월 미국 소비자 심리는 안정되었으나 노동시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25년 3분기 중국 분기 GDP 성장률은 4.8%로 둔화됨
 - '25년 9월 미국 제재목 가격은 하락세, 구조용패널 가격은 혼조세를 나타냄
 - 미국 관세가 인도네시아 가구 수출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베트남 목재산업도 관세 문제 대응방안을 모색 중임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10월)	2024년 누적 (1-10월)	증감률 (%)
원목(천㎥)	1,239	1,386	-10.6%
제재목(천㎥)	1,243	1,415	-12.2%
성형목재(톤)	62,663	66,333	-5.6%
합판(천㎥)	1,059	1,139	-7.0%
파티클보드(천㎥)	957	1,189	-19.5%
섬유판(천㎥)	171	247	-30.8%
목재펠릿(천 톤)	3,299	3,296	+0.1%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11.21.),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Fa6fSRHF-HHEhV9h34jteUZd3Xs3Y3vdlmr1tNSKgRKtrThAelDeFvGlalPoqqZ47.frswas02_servlet_engine5?nttd=3211535&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12.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Fa6fSRHF-HHEhV9h34jteUZd3Xs3Y3vdlmr1tNSKgRKtrThAelDeFvGlalPoqqZ47.frswas02_servlet_engine5?nttd=3211535&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12.24. 검색))

2 국내 목재생산업체 매출액 전년 대비 2,739억 원 증가³⁶⁾

산림청이 제재목 등 22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2024년도 국내 목재이용 현황을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2일 발표함

- 우리나라의 '24년 전체 목재이용량은 2,641만^{m³}이며, 국산목재 이용량은 518만^{m³}, 수입목재 이용량은 2,123만^{m³}으로 목재자급률은 19.6%로 나타남
- '24년 전체 목재이용량은 '23년 2,722만^{m³}보다 약 81만^{m³} 감소했으며, 수입목재 이용량은 69만^{m³}, 국산목재 이용량은 13만^{m³} 각각 감소함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전체 목재업체 매출액은 감소함

-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목재 수입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3,818억 원으로 '23년 8조 4,869억 원보다 1,051억 원 감소함
- 이에 반해 '24년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9,696억 원으로 '23년 3조 6,957억 원보다 2,73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탄소중립 관련 목재이용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목재 이용량은 소폭만 감소함

- 건설경기 침체와 관세 인상 등 국제정세 변화가 있었지만, 탄소중립 관련 목재이용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전체적인 목재이용량은 소폭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24년 목재자급률은 19.6%로 '23년 19.5% 대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김인호 산림청장은 목재가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특히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늘려나가야 한다면,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6) 산림청 보도자료(2025.12.0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13592&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c%88%98%ec%9e%85&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5.12.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13592&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c%88%98%ec%9e%85&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5.12.24. 검색))

9) 고철



① '25년 11월 고철 가격, 전월과 동일 수준 유지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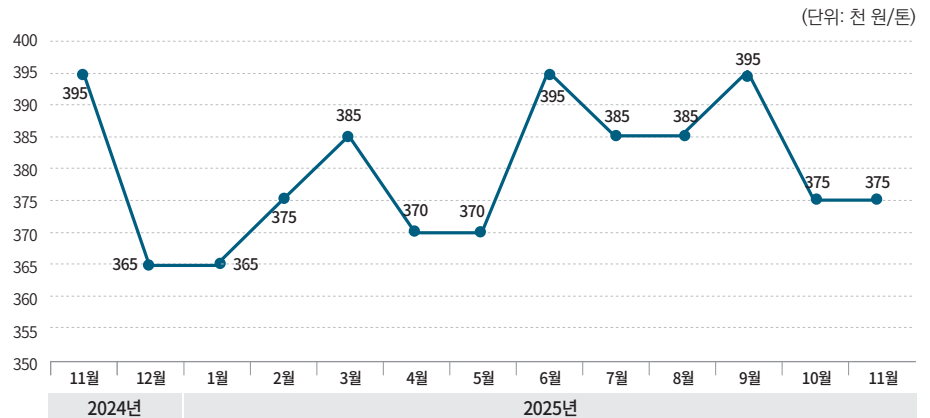
● '25년 11월 국내 고철 평균가격은 톤당 37만 5천 원으로 전월(37만 5천 원)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나타냄

- 전년 동월(39만 5천 원) 대비로는 5.1% 낮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세 흐름은 지속되고 있음
- '25년 고철 가격은 1월 36만 5천 원에서 출발해 3월 38만 5천 원까지 상승한 이후 4~5월 조정을 거쳐 6월에 다시 39만 5천 원으로 반등함
- 이후 7~9월에는 38만 5천~39만 5천 원 수준에서 보합 흐름을 유지했으나, 10월 37만 5천 원으로 하락한 뒤 11월에는 추가 조정 없이 동일 수준을 유지함

● 월별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는 철강 수요 회복 기대와 원자재 가격 변동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났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수요 둔화와 재고 부담 영향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모습임

- 특히 7월 이후 가격이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단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합적으로 '25년 고철 가격은 연중 반등과 조정을 반복했으나, 연간 평균 수준은 '24년 대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11.22.),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2.23.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2.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7)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11.22.),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2.23.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2.23. 검색))

1 영국 철강업계, 고철 공급망 강화 필요성 제기³⁸⁾

-  영국 철강업계는 전기로(EAF, Electric Arc Furnace) 중심의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철 공급망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함
 - 업계는 고철이 전기로 공정의 주원료로 활용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국내 스크랩 확보 여부가 향후 철강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영국은 고철 발생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공·선별 인프라 부족과 수출 중심 구조로 인해 국내 철강 생산에 활용 가능한 고급 스크랩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업계는 고철의 단순 수출보다 국내 순환을 확대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스크랩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철 수거·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친 공급망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고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전기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순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논의는 유럽 전반에서 탄소 규제 강화와 순환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고철을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는 산업 구조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시장에서는 향후 고철 공급망을 둘러싼 정책·산업 대응이 철강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8) GMK Center(2025.12.03.), <https://gmk.center/en/news/british-steelmakers-call-for-strengthening-of-scrap-supply-chain-in-the-country>(2025.12.23.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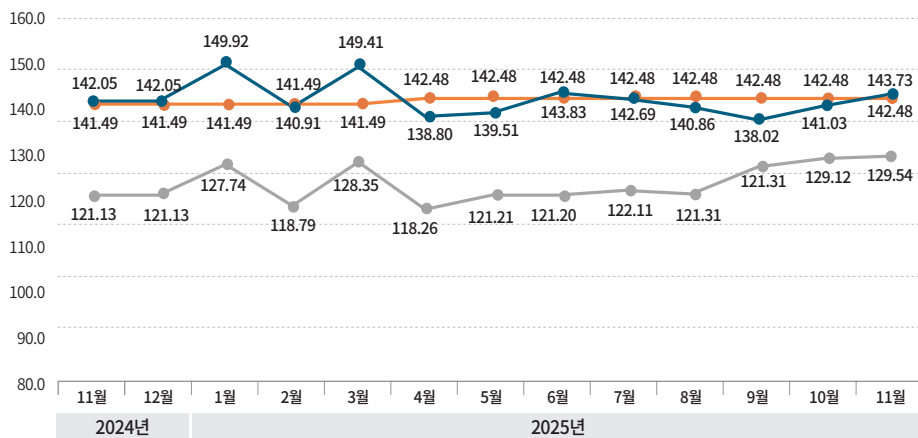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1 '2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선철·슬래브·빌렛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

- 11월 선철, 슬래브,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42.48p, 143.73p, 129.54p를 기록함
 -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여 제선 공정 후 생산된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부터 소폭 올라 전년 동월 대비 0.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로를 통해 생산되는 조강의 대표 반제품 중 하나인 슬래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함
 - 그 외 조강의 대표 반제품 중 하나인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함
 - 철광석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슬래브와 빌렛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 변동이 발생함

(2020=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42.05	142.05	149.92	140.91	149.41	138.80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9	1.2
빌렛	121.13	121.13	127.74	118.79	128.35	118.26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0.3	6.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3.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3.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중국, 감산·감축 이어 ‘철강 수출 허가제’ 도입 추진³⁹⁾

-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수출 물량 관리와 무역 갈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26년 1월부터 약 300개 철강 품목을 수출 허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철강업체는 수출 계약서와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짐
 - 올해 중국 철강 수출량은 1~11월 누계 1억 772만 톤으로, 역대 최대인 '15년 1억 1,240만 톤 기록을 상회할 전망이다
-  중국산 철강 유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강화되며 규제 도입 배경이 형성됨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율을 50%로 상향했으며, 캐나다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반덤핑 관세로 대응함
 - 우리나라도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 열연강판에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진행 중임
-  감산 정책과 수출 규제가 병행되며 국내 철강업계 실적 개선 기대가 제기됨
 - 중국은 '25년 3월 철강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생산능력 감축 정책을 추진해 옴
 - 반덤핑 관세와 K-스틸법 통과에 더해 수출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사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됨
 - 다만 허가제의 실효성과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9) 뉴스1(2025.12.15.),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6007989\(2025.12.23. 검색\)](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6007989(2025.12.23. 검색))

3

특수강 시장 성장세 속 국내 철강사 전략 전환 가속⁴⁰⁾

-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특수강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철강사들의 전략 전환이 진행됨
 - 전기차, 우주항공, 방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첨단 산업 수요 증가로 특수강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임
 -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리서치 인사이트는 세계 특수강 시장 규모가 '33년 3,16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24년 약 2,451억 달러 대비 연평균 2.87% 성장하는 수준임
- 
국내 철강사들이 고부가가치 특수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함
 - 포스코는 한화오션과 협력해 차세대 함정용 초고강도 강재 개발을 추진함
 -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용 초고장력강 개발에 착수함
 - 세아그룹은 항공우주용 특수강 글로벌 톱5 진입을 목표로 니켈·티타늄 합금과 초내열합금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함
- 
특수강 국산화와 정책 지원이 맞물리며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로 부상함
 - 국내 우주항공 산업은 부품 국산화율이 높지만 핵심 특수강·합금 소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임
 - 산업통상부는 '30년까지 특수강 등 10대 핵심 품목에 2,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임
 - K-스틸법에도 특수강 육성 관련 지원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고부가 철강 중심 구조 전환이 추진될 전망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0) 서울파이낸스(2025.12.15.),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623\(2025.12.23. 검색\)](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623(2025.12.23. 검색))

11) 자동차



① '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내수·수출·생산 모두 감소세⁵¹⁾

- 10월 내수는 전월 대비 19.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한 127,138대를 기록함**
 - 국산차는 추석연휴로 인한 전년 대비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17.4% 감소하였으나, 수입차는 테슬라 인기가 지속되며 11.9% 증가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63,624대로 전체 내수 판매 중 50.0%를 차지함
 - 전기차 중 국산은 EV4·EV5·PV5 등 신차효과로 기아가 87.2% 늘며 33.4% 증가를 주도했으며, 수입차는 테슬라와 BYD가 증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19.1% 증가함. 하이브리드는 국산 중심으로 13.0% 감소했으나, 수소차는 넥쏘 신차효과로 161.5% 증가함
- 10월 수출은 전월 대비 1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202,928대를 기록함**
 - 추석연휴 이동과 휴무일 조정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함
 - 친환경차 수출은 64,397대로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 동월 대비 0.8% 소폭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31.7%를 차지함
 - 하이브리드는 팰리세이드 순증 효과로 3.8% 증가, 전기차는 신차를 중심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0.3% 증가를 기록함
- 10월 생산은 전월 대비 9.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한 302,819대를 기록함**
 - 추석연휴 이동으로 공장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함
 - 현대는 13.8% 감소, 기아는 16.6% 감소했으며, 한국지엠은 21.1% 감소, KG모빌리티는 6.4% 감소, 르노코리아는 71.5% 감소함

41)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11.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12.24. 검색)

'25년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10월
내수	1,626,245	145,756	1,335,582	157,898	127,138	1,388,991	-19.5	-12.8	4
(국산차)	1,344,432	122,841	1,105,382	123,030	101,490	1,125,044	-17.5	-17.4	1.8
(수입차)	281,813	22,915	230,200	34,868	25,648	263,947	-26.4	11.9	14.7
OEM 수입	20,318	1,840	15,769	2,056	1,609	14,967	-21.7	-12.6	-5.1
수출	2,782,612	243,408	2,306,147	228,189	202,928	2,254,777	-11.1	-16.6	-2.2
(완성차 수출액)	70,786	6,198	59,100	6,405	5,545	59,628	-13.4	-10.5	0.9
(부품 수출액)	22,533	1,872	18,898	1,923	1,519	17,802	-21	-18.8	-5.8
생산	4,128,242	367,622	3,410,523	334,289	302,819	3,385,432	-9.4	-17.6	0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11.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12.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25년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 660.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올해 사상 최고치 달성 전망⁴²⁾

-  '25년 11월 자동차 수출은 64.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하여 역대 11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25년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동기간 역대 최대인 660.4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25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25년 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만 8천 대, 2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은 5만 4천 대, 15.5억 달러를 차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내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친환경차 수요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함
 - '25년 1~11월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량은 50만 대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 '25년 11월 내수 판매량은 14만 6천 대를 기록했으며, 친환경차는 총 7만 1천 대가 판매되어 11월 내수 판매량의 48.4%를 차지함
 - '25년 1~11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20만 7천 대를 기록하여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보급실적인 '23년 15만 8천 대를 뛰어넘음
-  '25년 1~11월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374만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400만 대 돌파가 기대됨
 - '25년 1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35만 4천 대를 기록함
 - 현 추세대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부는 대미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AI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애로 해소 등 내년에도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2)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2.22.),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36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12.24. 검색\)](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36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12.24. 검색))

3 미국,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 확정⁴³⁾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함

-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됨
-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통관 절차 가이드스를 발표함

-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총 15% 관세만 적용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스를 발표함
-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드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함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를 통해 관세 인하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 상담도 가능함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3)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2.04.),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298/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12.24. 검색\)](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298/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12.24. 검색))

12) 잡화



① 미국 제조업 PMI 48.2 기록, 위축 속도 추가 확대⁴⁴⁾

● '25년 11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2로 전월(48.7) 대비 하락하며 9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를 기록함

- 이는 시장 전망치(48.6)를 하회한 수치로, 미국 제조업의 위축 국면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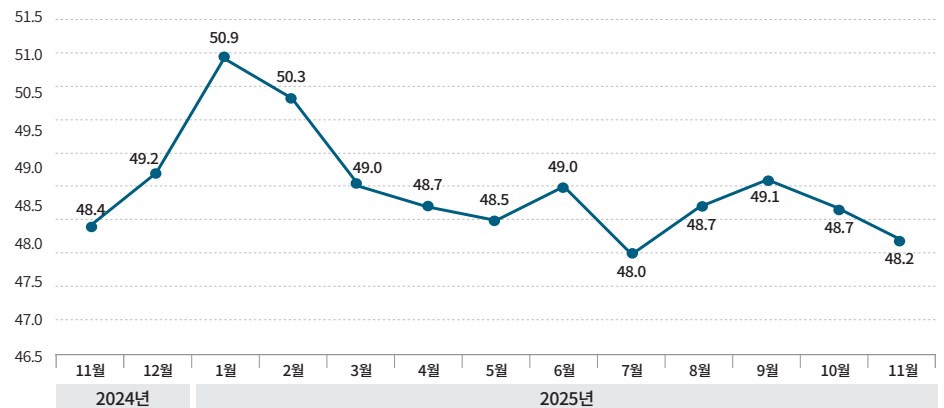
●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주문지수는 47.4로 전월(49.4) 대비 하락하며 수요 둔화 흐름이 강화됨

- 공급업체 배송 지수는 49.3으로 전월(54.2) 대비 큰 폭 하락해, 납기 지연 압력이 완화되는 동시에 생산 활동 둔화 가능성을 반영함
- 고용지수는 44.0으로 전월(46.0) 대비 추가 하락하며 인력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가격지수는 58.5로 전월(58.0) 대비 소폭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다시 확대된 모습임
- 수주잔량 지수는 44.0으로 전월(47.9) 대비 추가 감소해, 중기 생산 여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 반면 생산지수는 51.4로 전월(48.2) 대비 반등하며 기준선을 상회, 재고지수는 48.9로 전월(45.8) 대비 하락 폭이 축소돼, 재고 조정 압력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 ISM은 '25년 11월 기준 제조업 GDP의 58%가 위축 국면에 속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함

- 종합적으로 미국 제조업은 수요·고용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생산과 재고 지표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 반등 신호가 혼재하는 국면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향후 제조업 회복 여부는 신규주문 회복과 고용 조정 완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12.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4) Trading Economics(2025.12.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12.23. 검색\)](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12.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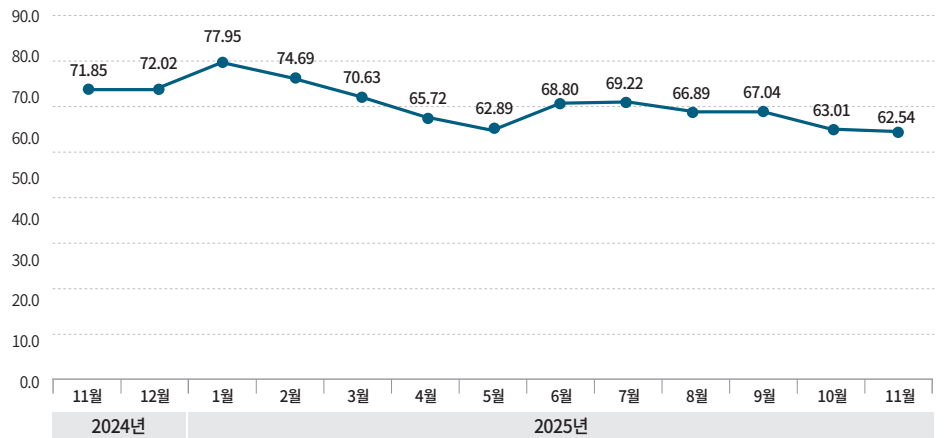
13) 유류



① '25년 11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3대 유종 모두 하락

- 11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0.7% 하락한 62.54달러를 기록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하여 저점을 찍었으나 6월에 반등한 다음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11월에는 5월 유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국제정세와 무역갈등,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당분간 유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감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 달러/배럴)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0.8	-11.2
Brent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0.5	-13.3
WTI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1.0	-14.5
평균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0.7	-13.0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11.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미국, 베네수엘라 연안서 유조선 나포⁴⁵⁾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을 나포함

-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0일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안경비대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및 이란 원유 수송 유조선에 대해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힘

나포된 유조선은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 연루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유조선 나포로 베네수엘라 정세와 에너지 수출에 대한 긴장이 확대됨

- 미 당국은 해당 선박이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와 연계돼 수년간 제재 대상이 돼 왔다고 설명함
- 선박은 등록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국기를 달고 있었으며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추정되며,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수출의 약 80%는 중국이 수입하는 구조로 알려짐
-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과 함께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군함과 항공기, 병력을 대규모 배치한 상태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제적 해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뉴시스(2025.12.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1_0003436908(2025.12.23. 검색)

3 미국, 천연가스 생산·수요·수출 사상 최고치 전망⁴⁶⁾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이 '26년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 건성가스 생산량이 '24년 103.2bcfd에서 '25년 107.7bcfd, '26년 109.1bcf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3년 기록한 103.6bcfd를 넘어서는 수준임
- 같은 기간 미국 내 천연가스 소비량은 '24년 90.4bcf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25년 91.8bcfd로 증가하고 '26년에는 90.8bcfd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LNG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내 비중이 강화됨

- 미국 LNG 평균 수출량은 '24년 11.9bcfd에서 '25년 14.9bcfd, '26년 16.3bcfd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단일 월 기준 '24년 10월 1,000만 톤 이상의 LNG를 수출한 최초 국가로 기록됨
- 유럽과 아시아의 LNG 구매 증가와 계절적 난방 수요 확대에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임

LNG 수요 확대에 따라 인프라 투자와 정책 대응이 본격화됨

- 미국 내 LNG 수출 능력 확대에 가스 소비량이 최대 40bcfd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파이프라인 용량 확장과 데이터센터·제조업 수요 증가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임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LNG 수출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투데이에너지(2025.12.11.),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91982>(2025.12.23. 검색)

4 중국, '30년 천연가스 생산 3,000억 m³ 확대 전망⁴⁷⁾

❖ 중국이 '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3,000억 m³로 확대하며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6~'30년) 기간 동안 연간 100억 m³ 이상 생산 증가를 통해 '30년 생산량 3,000억 m³ 달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제14차 5개년 계획('21~'25년) 기간 동안 축적된 에너지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확대 전략임
- 앞서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석유·가스 자원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국은 석유 확정 매장량을 70억 톤, 천연가스 매장량을 7조 m³ 누적 확대함
- 이는 이전 5개년 계획 대비 석유는 연평균 43%, 천연가스는 40% 증가한 수준으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연간 약 130억 m³의 생산량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장기적으로 비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에너지 구조는 석탄 감축, 석유·가스 안정화, 비화석 연료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60년 기준 화석 에너지 비중은 23%로 축소되고 비화석 연료 비중은 77%까지 확대될 목표임
- 인공지능과 고에너지 소비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60년 20조 kWh를 초과하며 전력 보급률도 6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투데이에너지(2025.12.15.),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91982>(2025.12.23.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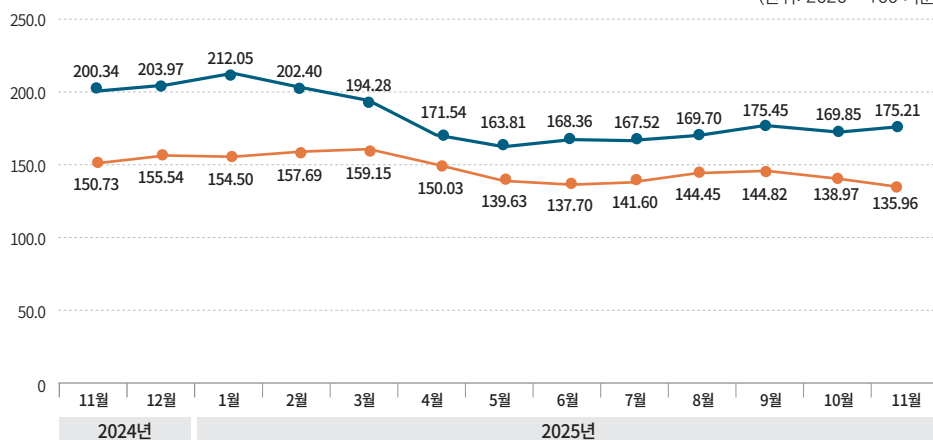
● 나프타
● 에틸렌

① '2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상승, 에틸렌 하락

11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3.2% 상승한 175.21p, 2.2% 하락한 135.96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시작된 1월 이후 동반 하락 후 5월에 저점을 기록한 다음 상승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3월 이후 6월까지 하락했으며, 11월에는 나프타와 상승과는 반대로 하락이 지속됨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변동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단위: 2020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3.2	-12.5
에틸렌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96	-2.2	-9.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3.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2.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정부,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 허용⁴⁸⁾

-  정부가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의 수소추출을 허용하는 제도 개정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와 추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함
 - 기존에는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연료만 수소추출설비 적용이 가능해 암모니아 활용에 제도적 제약이 존재함
 - 정부는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24년 9월 충북 충주시에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을 구축해 실증을 진행함
-  많은 협의와 심의 끝에 수소추출설비 기준법 개정으로 암모니아 활용 수소 산업 확대 여건이 조성됨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후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기준 (KGS AH-171)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에는 수소추출설비 적용 대상에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독성가스 취급 기준을 추가함
 -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과 안전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뉴시스(2025.12.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5_0003430720\(2025.12.23. 검색\)](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5_0003430720(2025.12.23. 검색))

3 여천NCC 3공장 폐쇄 결정으로 에틸렌 생산 감소 전망⁴⁹⁾

 여천NCC가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연간 47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3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일시 가동 중단 상태였던 여천NCC 3공장 폐쇄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적 석유화학 사업 재편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3공장 폐쇄 시 국내 에틸렌 생산량은 대신 롯데케미칼 감산분 110만 톤을 포함해 총 157만 톤 감소하게 됨

 정부는 에틸렌 감축 확대를 위해 여천NCC와 여수 롯데케미칼 공장 통합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통폐합을 목표로 외부 컨설팅을 진행 중임
-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해 구조조정 성과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되며, 정부가 제시한 에틸렌 감축 목표 270만~370만 톤 달성을 위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됨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 전반으로 사업 재편 논의가 확산됨

- 여천NCC는 3공장 폐쇄를 통해 1·2공장 가동 효율을 높이고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
- LG화학과 GS칼텍스, 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 등도 산단별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임
- 업계에서는 정부 유인책과 대주주의 결단이 병행돼야 과잉 공급 해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옴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한국경제(2025.12.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426731>(2025.12.23.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